청암정돌다리

청암정 돌다리와 봉화 돌다리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대부분은 구릉성 산지를이루고있으나태백산지에서발원하는낙화암천과내성천이읍내를관류하여관개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에 쌀농사가 활발하다. 쌀 생산량은 군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봉화군 일대의 양잠업을기반으로삼계리에는생사공장이 입지해 있다. 영동선 철도와 국도 · 지방도가 읍의 중앙부를 동서로 횡단하여 교통은 편리하다.

거북이 등에 지은 집… 청암정

안동 권씨 집성촌인 봉화읍 유곡1리 닭실마을. 유곡의안동권씨세가라고하여유곡권씨라고도하며, 경주의양동, 안동의내앞, 풍산의하회와함께삼남의4대길지의하나라고 한다. 이 마을은 풍수지리상으로 닭이 알은품은듯한지세라하여금계포란형이라 한다. 조선 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이곳을 전국 8대 명당의 하나로 손꼽고 있으며, 이 고을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500여년간대물림으로이어지고있는전통한과때문이다.

안동 권씨의 시조는 본래 신라 왕실의 후예인경주김씨김행으로, 고려건국때왕건을 도와 공을 세운 인물이다. 왕건으로부터 '능히지혜가밝고권도에통달했다'고해서 권씨성을하사받았다.

닭실마을의입향조는무오사화때낙향한 충재 권벌 선생으로, 안동 권씨의 중시조이다. 연산군때급제해사간원과사헌부를거쳐 예조참판에 이르렀으나, 중종 때 기묘사화로 파직돼 낙향했다. 그 후 다시 복권돼 우찬성까지 이르렀으나 을사사화에 연루돼 다시 파직당하고, 1574년에는 양재역 벽서사건에얽혀삭주로유배가서생을마쳤다. 그가 이 곳을 택하게 된 동기는 삼척부사로 있을 때 산수가 수려한 이 마을 앞을 여러 차례지나다니면서눈여겨봐뒀기때문이라고한다.

명당으로 꼽히는 마을 한가운데 조선 중종때의문신인충재권벌선생의종택이자리하고있다. 사적명승종택옆에는그윽한 운치를 자랑하는 정자 청암정이 앉아 있다. 청암정은 충재가 지은 정침의 별원이며, 정침의서쪽편에지어졌다.

별원에는거북바위라고부르는커다란암반이 있었는데, 이 암반 위에 세워져 있다. 한 마디로 청암정은 거북이 등에 지은 집이다. 14평정도의규모로지어진청암정은정면4칸, 측면 4칸의 T자형집으로 팔작지붕을얹었다. 이정자는기단을생략한채거북

바위 위에 높은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다음그위에건물을놓은독특한양식으로 지어졌다. 누마루에는 예의 계자난간을 둘러놓았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는 처음 이 정자를 지을 때 온돌방으로 만들었는데, 그 온돌방에 불을 넣으니 바위가 울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노승이 지나가다가 말하기를 이는 거북이등에다불을지르는것이니마루방으로 만들라고해지금의모습을갖추게됐다. 그리하여 청암정이세워진 거북바위둘레에는 인공적으로 연못을 조성해 놓았다. 거북이는물이있어야생명을보전할수있으니바위주변에물을도입한것이다. 물은집앞을 흐르는 신탄의 개울물을 동쪽으로 나 있는 수로를 통해 집안으로 끌어들여 서쪽 작은 문옆수로를통하여배수되며, 배수된물은 농업용수로이용된다.

돌다리와 거북바위의 조화

청암정과 서재로 쓰던 충재 사이에는 연못을연결해주는돌다리가하나있다. 이돌다리는 길이 240cm, 폭 50cm, 두께 20cm 정도의판석두개가연결되어있어, 돌다리와거북바위는너무나도잘조화가이루어져 있다. 간결하면서도제 기능은 하고 있으니 더이상바랄것이없다. 한마디로군더더기 가하나도없는조형물인것이다. 아마도이곳에나무다리를놓았거나지금의돌다리보다 규모를 크게 했거나 장식을 가미했다고 하면 청암정은 그 당당함을 잃었을 것이고 거북바위와는조화를이루지못하고겉돌았을것이다. 별것아니지만그야말로멋진작품이바로이곳에있는돌다리인것이다. 청암정에 오르는 석계 또한 자연 암반을 다듬어계단을만들었고, 못주변을돌아가며쌓아놓은 석축 또한 청암정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있다.

청암정.

뒷산의 동북 모퉁이에는 서설당이 있고, 시냇물 상류에서 하류의 석천정까지는충재 공의유운을전하는정자가있다. 전하는바에따르면, 1526년(중종21년)에청암정이조성된뒤, 그아래에있는석천정은충재의아들 동보공이 지은 것으로, 약 500년이 지난 오늘날당초의모습을짐작하기는어렵다.

종택의유물관안에는보물급의문화재와 당시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유품들은 한국전쟁 때 집안에서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몰래 묻어 보관해 왔다. 보물 제261호로지정된「충재일기」를비롯하여「근사록」,「왕세자책례도감병풍」,「우향계측」,「퇴계선생서」 등이 전시되어 후손에게 제대로 전해주고자힘쓰고있다.

방치된 봉화 돌다리, 문화자료 가치 있어

경북봉화군법전면풍정2리. 봉화군은원래 고구려의 고사마현인데 신라 35대 경덕왕 16년(757) 12월에옥마로개칭하고, 수령군의 관할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봉화로 개칭되었고, 고려 공양왕 때 봉성이라고도 불리었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봉화로 불리어 왔으며, 1913년 군청사가 춘양에서포저리로옮겨와현재의군소재지가되었다.

북쪽경계부는대체로소백산맥이태백산맥에서 분기하는 기부에 해당되며, 태백산, 구운산, 금산, 선달산등 고봉이 줄을 잇고,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한 군내에도 1,000m 이상의고봉을 일으키는여맥이 중첩하여 경상북도 제1의 산악군을 이루고 있다. 중앙부를 남서류하면서 여러 지류를 모으는 낙동강 상류인 내성천 유역에 약간의 평지가분포한다.

봉화돌다리.

법전면은 봉화군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춘양면, 동으로는 소천면, 남으로 명호면, 서에는 봉성면과 경계하며 비교적 고지대에위치하여건조한지역으로밭이많다. 관내 풍정리의 작은 실개천에는 길이 270cm, 폭 180cm, 두께 15cm의 넓은화강암다리가하나있다. 옛날에춘양으로가는 도로에 다리를 가설한 것으로 보이며, 시기는화강암분석결과신라시대로추정된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비가 많이 와서 마을 앞 냇물이 불어나 마을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자 홍장군이라는 힘 센 장사가 큰 돌을 혼자 들어 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돌다리라 불렀다. 일설에의하면마귀할매가돌을이고 와서 다리를 놓았다고도 한다. 한편, 1984년경에는 돌다리 위에 시멘트 다리를 붙여 넓혔더니 그 후 동네 주민들에 의해 "과부가많이생긴다"는건의가있어시멘트 다리를다시철거했다고한다.

지금은 이 돌다리로 인하여 마을 이름이 풍정2리보다는 돌다리(석교)란 이름으로 인근주민들에게불리고있다. 허나이돌다리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 자료로 가치가 있으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어 현재 방치되어 있다. 안타까울뿐이다. 우리나라최초의돌다리일 수도 있는 이 돌다리를 봉화군에서 잘보존할뿐만아니라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를바란다. CJ

손광섭
광진건설회장 · 청주건설박물관장